



민속자료 이관 협의... 상설전시실 자료는 임대

8060점 돌문화공원 이관키로 도박물관과 업무협약서 체결 도박물관 민속실은 존치하되 최소 3년 임대...필요시 연장 뒤늦게 도박물관 증장기용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전시실.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짓고 있는 돌문화공원관리소로 민속 자료를 이관하되 상설전시실 자료는 최소 3년 임대 방식으로 존치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료 이관이 명문화됐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이학승)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경래)은 12일 '민속자료 이관 업무 협의서'를 체결하고 "2013년 4월 전시 박물관 유사 기능(민속) 통합을 계획과 관련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유 민속 자료를 돌문화공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속 사업소인 두 기관은 이번 협의서에서 2013년 작성된 계획에 근거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8060점을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 민속 자료는 양측 입회 아래 물품을 실시하면서 직접 작성할 예정이다. 이관 시기는 오는 9월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완공 직후로 정

했다. 다만 설문대할망전시관 민속관에 놓일 150점은 6월 중에 우선 이관될 예정이다.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전시실 자료는 이관하지 않고 돌문화공원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임대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고 양측이 협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속자료는 상설전시실 자료 교체 시 추가 임대할 수 있는 조항도 덧붙였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민속자

연사박물관 소장 고고민속자료는 1만 2392점에 이른다. 이중 2141점이 1-2 민속전시실에 상설전시되고 있다. 이번 일은 1984년 개관해 제주 대표 공립박물관으로 기능해온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정체성을 흔들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2013년 제주도 정책 결정 이후 민속관을 갖춘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은 국비를 포함 909억원을 들여 건립이 추진된 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7-2018년 27억원을 들여 민속전시실 등을 리모델링하며 관련 시설을 보강했다. 앞선 1차 제주향토문화예술증장기계획(2003~2011년)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분리가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설문대할망전시관 완공을 앞두고 돌문화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민속자료 이관 요구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날벼락'과 같았다. 돌문화공원은 민속자료 이관을 전제로 설문대할망을 건립하면서 국고를 가져왔는데 이를 어길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두 기관이 2013년 제주도 정책 결정에 따라 지난 연말 민속자료 이관에 협의한 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뒤늦게 증장기발전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측은 올해 상반기에 증장기발전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민속자료 이관 이후 박물관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협의가 두 기관에 상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46)

여자

문순자

지구에 오래 살면 저렇듯 동굴 어질까
은종일 해바라기 23.5도 그 만큼 어머니,
이곤 유모차 그도 슬몃 기운다

첫 남잔 징용으로 일본 간지 칠 십년
두 번 째 4·3 핏줄로 세상 뜬 지

사십 년
체념도 용서도 아닌
하늘이라도 또 섬긴다

당신은 엄쟁이다
소금밭 일구던 여자
절에 가지 않아도 은뎀으로 절을 한다
서너 평 돌염전에도
눈부시다 천일염

첫 남자는 징용으로 일본 가고, 두 번 째는 4·3 핏줄로 세상 뜨고, 어머니는 은뎀으로 절을 하며 유모차를 끈다. 소금밭을 일구던 '엄쟁이'. 구업을 비롯한 중업과 신업을 통틀어 속칭 '엄쟁이'라 한다. 소금 밭 '엄(鹽)'을 제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 그만큼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을 만드는 일이 생업의 한 수단이었지만 1950년을 전후하여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구업 포구 '철무지개' 서쪽 '쇠머리코지'에서부터 중업 마을과의 경계인 '웃어'까지가 소금밭이었다. 그 길이는 약 400m이고, 폭은 가장 넓은 곳이 50m이다. 소금밭은 공유수면상에 위치하여 지적도가 있을 수도 없지만 일정량 개인 소유가 인정되었으며,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부스를 운영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24-0474.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30평 정도의 소금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구업리의 전체 염전 규모는 3000㎡에 가깝다. 연간 생산량은 17t을 조금 넘겼다. 면적당 생산량은 19.4kg으로 종달리의 3.7kg보다 앞섰다.

일본에 조선인 징용노무자가 파견된 기간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은 사할린 섬 등 일본의 탄광에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되어 동남아와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이나 철도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중 상당수가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결국 국외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 중 또는 전후 전범으로 희생되었다. 해방이후는 4·3으로 영면한 사람들이 많다. 여자는 남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합창으로 새봄 앞둔 제주를 노래하리

제주국제합창축제엔심포지엄 이달 17일 개막 나흘간 열려 6개국 1000여명 공연·세미나

창축제엔심포지엄이다. 이달 17일 개막해 20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과 제주시 탐동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4회째를 맞는다. 한국은 물론 라트비아, 미국, 슬로바키아, 필리핀, 코스타리카에서 실력있는 합창단들이 출연해 '세계가 제주를 노래하다(The World Singing of Jeju)'를 주제로 화음으로 하나되는 무대를 꾸민다. 이 기간 유명 지휘자인 라트비아의 시그바즈 클라바를 비롯 미국의 도린

라오, 티제이 하퍼, 아일린 장 등이 참여해 합창을 주제로 흥미로운 강의를 펼치고 새로운 합창곡을 들려준다. 낮에는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저녁엔 정상급 합창단들의 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이번엔 2014세계합창올림픽에서 제즈와 대중음악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아카펠라그룹 메이트리가 개막 연주와 특별 연주에 나선다. 폐막 무대엔 8인의 성악가로 구성된 국내 외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솔리스트 앙상블 골든마에스타가 초청된다. 작곡가 이영조·안현순 씨가 제주를 소재로 작곡한 합창음악은 제주도민페스티벌파이어와 제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다.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잇따라 공연이 연기·취소되는 현실에서 예정대로 일정을 치르는 점과 관련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부스를 운영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24-0474.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에서 전문 오페라 인력 키운다

오페라인제주 아카데미 4월부터 주1회 운영 예정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 음악인은 물론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오페라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제주지역에서 전문적인 오페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처음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음악전공자, 5년 이상 활동한 동호인 합창단원 등에게 주어진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별로 오디션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페라 아카데미는 4월부터 8월까지 주1회 총 20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마스터클래스, 음악코치, 연출가 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수료 후에는

오페라인제주 주·주관하는 무대에 참여할 수 있고 오페라단 합창단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참가자 접수는 3월 9일부터 26일까지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opera-in-jeju@naver.com)로 이루어진다. 웹하드(ID CIVIL9922, 비밀번호 0000)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4)748-7879. 전선희기자

한금희 수필가 첫作品集

2010년 '한국산문'을 통해 문단에 나온 한금희 수필가가 첫 수필집 '나의 아량은 뱀눈 아니가'(북인)를 냈다. 이번 수필집에는 한 수필가의 '영웅'이었던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일하게 쓸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 '조상', '부모', '형제', '자손', '인생공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등 6장에 걸쳐 40편이 실렸다. 제주가 고향인 한금희 수필가는 '요즈음 컴퓨터는 이렇게' 등의 저자로 가톨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지냈다.

전덕순 수필가 '... 상념들'

제주문인협회 전덕순 회원이 '내 안의 어린 상념들(수필과비평사)'을 펴냈다. 그의 첫 수필집에 수록된 글은 50편이 넘는다. '어머니의 세월', '초록으로 물든 하루', '삶의 여유', '거울 속의 내 모습', '편도여행' 등으로 나눠 묶었다. 전 수필가는 문학 활동을 하며 모든 사물이 의미있는 연으로 다가왔고 되풀이되는 일상도 새롭게 각색되었다고 말했다. 하찮은 것들에 눈길을 두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여정이 갈피갈피 담겼다.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쉘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험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쉘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쉘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쉘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